

성탄절 후 두 번째 / 신년 주일 예배
THE WORSHIP SERVICE OF 2ND SUNDAY AFTER CHRISTMAS

주후 2022년 1월 2일 오전 10시

인도: 김일선 목사

*입례 찬양 Opening Hymn	“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”	다같이
*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		인도자
*찬 송 Hymn	53장 “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” (새 9)	다같이
*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	1번 시편 (Psalm) 1편	다같이
*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		다같이
*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		인도자
*송 영 Gloria Patri	555장 “세 번 아멘”	다같이
*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		다같이
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		윤영록 장로
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	마가복음(Mark) 1:12-15	장경국 집사
찬 양 Anthem	“주는 포도나무”	찬양대
설 교 Sermon	“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” (The Kingdom of God Is Near)	김일선 목사
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	“예수 하나님의 공의”	다같이
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		다같이
주의 만찬 Communion		다같이
봉 헌 Offerings		다같이
*송 영 Doxology	353장 “내 주 예수 주신 은혜” (새 317) 1절	다같이
*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		다같이
교회 소식 Announcements		인도자
*찬 송 Hymn	246장 “내 주의 나라와” (새 208)	다같이
*축 도 Benediction		김일선 목사

*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. Please stand if you are able.

고백의 기도

(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,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)

다같이: **거룩하신 하나님,**

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, 새 날이 열어주시지만, 우리는 여전히 그릇된 욕심과 세상의 욕망을 좇을 때가 많았고,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다짐하면서도,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며 죄악 가운데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.

“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,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.”

우리의 죄된 모습과, 삶이 뒤따르지 못했던 그릇된 신앙을 회개하오니,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,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. 그리하여, 새해를 새롭게 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, 그 시간 속에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, 2022년 새해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시간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.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,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**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. 아멘.**

오/늘/의/ 성/경/말/씀 TODAY'S SCRIPTURE

“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.” (한글개역 **막1:15**)
“The time has come, He said. The Kingdom of God is near.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.” (NIV **Mark 1:15**)

매/일/성/경/읽/기 DAILY BIBLE READINGS

날짜	1/2 (주일)	1/3 (월)	1/4 (화)	1/5 (수)	1/6 (목)	1/7 (금)	1/8 (토)
	창2	창3	창4	창5	창6	창7	창8
본문	마2	마3	마4	마5	마6	마7	마8
	스2	스3	스4	스5	스6	스7	스8
	행2	행3	행4	행5	행6	행7	행8

신년 특별 새/벽/기/도/회 (주제 - “처음마음으로”)

날 짜	말씀 및 성경 본문	기 도
1월 4일(화) 오전6:30	“마음을 새롭게” (롬12:1-2)	문일호 장로
1월 5일(수) 오전6:30	“마음과 영을 새롭게” (겔18:30-32)	이성우 장로
1월 6일(목) 오전6:30	“정직한 영을 새롭게” (시51:9-12)	김재우 장로
1월 7일(금) 오전6:30	“심령으로 새롭게” (엡4:22-27)	김강석 장로
1월 8일(토) 오전6:30	“지식에게까지 새롭게” (골3:5-10)	윤영록 장로

지난 주일(12/26) 말씀

예수의 이름으로 (5) – “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” (계 7:9-12)

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은 (장차) 세상의 끝(종말의 때)에 일어날 심판과 구원의 모습이 어떠할지? 그 구체적인 정황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. 사도 요한의 계시에 따르면,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,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,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. 즉, 앞으로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줌으로써, (현재의) 극한 고난도 감히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. 특별히,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(계7:10)는 말씀은 1)첫째, 우리 구원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의미이고, 2) 둘째, 우리의 깨어짐이 (오히려) 하나님의 구원이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이며, 3) 셋째, 어린양의 보혈로 정결케 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(바로)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. 그러므로, (비록) 세상의 관심은 (온통)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? 에 집중되어 있어도, 우리의 관심은 (과연)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잡힌 바 될 것인지? 에 더 집중되어야 합니다. 그래야만, 우리는 죄로 인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그 중심을 잃지 않고,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, (극한)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진실한 믿음을 지켜가게 되는 것입니다. 진정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며,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,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

설/교/ 메/모